

도내 간선도로망 구축 큰 성과 거뒀

연말까지 국도 9개소·국지도 1개소·지방도 2개소 준공... 제4차 5개년계획에 13개노선 반영

전북도는 SOC사업의 도로분야에 역량을 집중 추진해 간선도로망 구축 및 국가계획 반영에 큰 성과를 거뒀다.

22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도로에 1,190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국도 9개소(용정~용진, 황등~오산 등)와 국지도 1개소(계곡~신덕), 지방도 2개소(영원~주산, 도원~민하) 85.6km를 신설 또는 시설 개량해 준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정제 구간 해소,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준공·개통되는 도로를 살펴보면, 익산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4호선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2009년 착공후 1,680억원 투입된 신시도~무너도 구간이 7월 개통으로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해 지역주민과 고군산군도를 관광하는 이용객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국도 30호선 격포~하서 구간은 전체 8.8km중 7월에 3.86km, 12월에 3.09km가 부분 개통돼 새만금 및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익으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도 1호선 정읍~원덕 구간은 3월에 10.8km, 4차로 개통돼 전남·전북간 지역연계 강화로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전주 북부권 주민의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국도 21호선 용정~용진 구간(11.2km)을 11월초 개통했다.

특히 기존 도로가 급경사이고 산악도로인데다 선형이 좋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겨울철 잦은 차량통제 구간인 국도 30호선 진안~안천~무주 적상(11.6km)구간을 12월초에



제3차 경영평가 위원회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는 김일재 행정부지사 및 위원들이 참석하여 제3차 경영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경영평가 대상기관 및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개통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국도 23호선 황등~오산 구간(10.8km)은 21일, 국도 27호선 장신~송학 구간(1.7km)은 오는 30일 개통해 익산도심을 우회하는 자동차전용도로와 KTX서부역사와 산업도로를 연결해 익산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국도 23호선 성송~고창(6.8km) 구간 및 국도 17호선 오수~갈매(7.8km) 구간 역시 시설을 개량해 12월말 개통 예정이며, 전북도에서 시행하는 계곡~신덕 국지도 및 영원~주산, 도원~민하 지방도는 연말까지 준공 예정이다.

국지도 49호선 계곡~신덕간 구간은 2009년 착공해 7년여 만인 12월말 준공해 시설물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순 개통예정인 것으로 완

주 구이면에서 입실 신덕면까지도 649억원을 투입해 5.6km를 2차로 신설해 기존도로(8.5km) 대비 2.9km 단축됐고, 국도 27호선, 지방도 714.749호선과도 연결돼 동서축 보조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게 돼 물동량 수송, 지역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입실 신덕면 외랑마을 서충석 이장은 "기존 도로가 급경사이고 선형이 불량하여 겨울철 통행에 불편을 느꼈는데 새로운 도로 개설로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도 736호선 영원~주산간 구간(4.4km)과 715호선 도원~민하간 구간(1.68km) 역시 12월말 준공해 내년 1월중 개통 예정으로 위험도로 구간 등에 대한 도로개선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전망된다.

부안군 주산면 신천마을 박성철 이장은 "영원~주산간 지방도 개통으로 정읍과 부안 방면의 이동거리가 단축돼 지역간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도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된 국가계획인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국도 10개노선(102km, 6,428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2개노선(20km, 4,096억원), 국가지원지방도 1개노선(10.3km, 663억원) 등 13개 노선에 총연장 132.3km, 1조1,187억원을 반영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국도 및 지방도 개통으로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해 지역개발을 점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AI 산란계 농가로 확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오리농가에 이어 산란계 농가로도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최대 산란계 밀집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에서 AI가 발생한 가운데 이날 또 다시 AI의심축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AI의심축이 발생한 농가를 비롯해 보호지역(3km)에 위치한 산란계 농가(53농가, 117만수)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에 나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 김제 용지면 산

란계 농가에서 AI의심신고가 접수돼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예방적 살처분을 한 바 있다.

한편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국장 차 단방역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조 및 지시사항 이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업체에서는 내 농장 및 시설의 차단방역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방역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도, 하반기 자동차세 724억원 부과

내년 1월2일까지 납부해야

전북도가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42만4,000대에 대해 하반기 자동차세 724억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내년 1월2일까지이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억원(5%) 증가했는데, 과세대상 차량이 7,000대 정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세 대상별로는 승용자동차 686억

원, 승합자동차 6,000만원, 화물자동차 2억원, 기타(특수, 125cc이상 이륜차) 11억원이며,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 205억원, 군산시 88억원, 익산시 89억원 순이며 가장 적게 부과된 지역은 장수군 3억원이다.

자동차세는 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가능하다.

이달 한 달 동안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내년 납부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안재용 기자

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구슬땀

전북도가 동절기 대비 각 시군과 합동으로 약 3개월동안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했다.

중점 발굴대상은 각종 복지사업 자격중지자, 비정형 거주자, 각종 공과금 체납 가구 등으로서, 각 시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지난 12일 기동보 4,735가구의 위기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에도 장기적인 경제침체, 개인주의적인 사회분위기 등으로 주변에 대한 관심이 적어져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는바, 주변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는 성숙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재용 기자

혁신도시, 중장기 교통대책 마련한다

실무회의 개최... 전주시와 인접 시외지역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해결방안 논의

전북도는 혁신도시 이전 완료와 만성지구 조성을 앞두고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향후 교통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전주시, 완주군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지난 21일 개최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한국농수산대

학 앞을 지나가는 봉주벌리로와 주변 온고을로 등 전주시와 인접 시외지역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혁신도시시는 개발계획에 따라 광역교통망을 토대로 사통발달에 유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12개 이전기관 등이 참여하는 '혁신도시상생협의회'를 구성.운

영하며 교통혼잡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장기적인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전주대 방향 도로 확장이 완료돼 교통흐름이 좋아졌으나 증가하는 혁신도시 거주 인구의 김제, 정읍 방향 등 유동인구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은 향후 상생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으로 전북도는 다각적으로 관계 및 이전기관 간 협조를 이끌어내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집중으로 전주대 방향 5km구간대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참석 기관 관계자 간 대책을 논의했다"며,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만큼 주변지역의 교통량 증가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주시, 완주군과 협력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연구원,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전북연구원은 22일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하는 '제3회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시상식'에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는 배움과 문화가 있는 일터를 만들고, 책 읽는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독서 친화적인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전북연구원은 독서경영을 통한 소

통 및 창의력 증진의 성과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을 인정받아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강원직 원장은 "독서경영이 곧 연구환경이며 자기계발과 연구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독서를 권장해 왔다"며 "독서가 일상화된 연구환경 조성으로 연구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6 나눔캠페인 기부자
(장수군 계북면)

- ▲농소마을 주민 일동 194,000
- ▲당저마을 주민 일동 86,000
- ▲백암마을 주민 일동 128,000

총계 408,000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